

# 《해동》표기를 통해 본 고구려의 민족별소속문제에 대하여

엄명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은 혼혈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혈통과 독특한 체질을 가진 단일민족이며 하나의 언어와 생활풍습을 가진 유구한 민족입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91페이지)

《해동》(海東)이라는 표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어왔다. 《해동삼국사》, 《해동명장전》, 《해동역사》 등 우리 나라의 옛책들과 중국의 옛 역사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해동》이라는 이름을 중세조선의 나라들을 가리켜 많이 썼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론 《해동》이라는 표기는 우리 나라만을 가리켜 쓴것이 아니라 발해에 소속된 말갈부들을 《해동제부》 등으로 부른 기사 등이 한두건 보이고있다.

여기에는 봉건중국의 나라들에서 자기의 동쪽에 있는 바다 건너의 모든 나라와 지역을 가리켜 《해동》으로 표기한 자기 나라 중심의 대국주의적립장이 다소 표현되어있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조선의 나라들을 특별히 한데 묶어 《해동》이라고 표기한 옛 역사책들을 보면 《해동》이 곧 조선민족의 나라들을 통칭하여 쓴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가 《해동》으로 불리우던 조선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은 첫째로, 옛 조선사람들이 일치하게 고구려를 《해동》의 나라로 보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견해는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김부식은 1145년에 이 책을 완성하고 왕에게 낸 글에서 《해동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이 나라들의 사실을 응당 책에 적어놓아야 된다는것, 그러나 학문에 종사하는 우리(고려)사람들이 자

기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는것, 또 중국의 옛 문헌들에는 삼국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나 《상내략외》(詳內略外) 봉건중국의 일들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남의 나라 즉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는 간단히 기록하였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김부식의 이 글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해동삼국》으로 명백히 표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 한것은 김부식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국의 옛 국가들과 명백히 구별하여놓았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우리 나라 삼국을 《내》(內), 《외》(外)로 갈라놓은것은 그것을 잘 설명해준다.

《삼국사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 국가적으로 편찬된 정사였던만큼 이러한 견해는 저자 자신뿐아니라 곧 고려의 국가적인 견해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아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저자인 중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보장왕이 즉위할 때...당시 보덕화상이 룡반사에 있으면서 잡교가 정통종교와 병행하는 날은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여러번 말려서 말하였으나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는 신통력으로써 거처하던 방을 날려 완산주(지금의 전주)의 고대산으로 옮겨 거기서 사니 이것이 바로 영희원년 경술(652)년 6월이다. 그후 얼마 못되어 나라가 망하였으니 지금의 경복사에 있는 <날라온 방>이라는것이 바로 이것이다.》(이상은 《국사》에서 인용한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 《삼국유사》 권3 흥법 제3 보장봉로 보덕이암

일연이 인용한 우의 내용에서 《국사》라

는것은 다름아닌 구《삼국사》였다.

《대각국사문집》에 《삼국유사》의 이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실려있는데 《대각국사문집》에서는 이 이야기가 《해동삼국사》에 있다고 전하고있다. 이 《해동삼국사》는 다름아닌 구《삼국사》였다.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담은 《해동삼국사》 즉 구《삼국사》를 국사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저자가 고구려 등 삼국을 《해동》으로 표기하고 자기 나라(고려)의 역사, 《국사》로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함께 단군조선에 뿌리를 둔 《해동》의 나라였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년표의 앞부분에서 《해동》은 나라가 있는지 오래다고 하면서 조선(고조선)은 년대가 아주 오래여 사적을 자세히 알수 없으나 삼국에 이르러서는 그 시초와 종말을 자세히 참고할수 있으므로 삼국의 년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해동 즉 우리 나라 역사의 첫머리에 고조선을 앞히고 그다음에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을 놓은것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이 고조선의 뒤를 이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왕력에도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삼국유사》권1 왕력1)이라고 한 기사가 실려있다. 이것은 동명왕(주몽)이 단군의 직계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구려가 조선민족의 후예이며 고조선을 이은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쓴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동이 조선의 나라들을 가리킨다는 견지에서 보면 우리 나라 역사의 당당한 한 부분으로 존재하였던 발해를 《해동성국》<sup>\*1</sup>이라고 한 역사기록과 조선봉건왕조시기 사람들이 자기들을 포함한 우리 나라 역사책들의 제목을 《해동》<sup>\*2</sup>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고구려를 어김없이 포함시킨 사실들

은 고구려가 명백히 우리 민족의 국가였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sup>\*1</sup> 《삼국유사》 제1 기이, 제2 발해, 《신당서》 권219 열전 발해, 《문헌통고》 사예고 3 발해

<sup>\*2</sup> 《해동역사》(18세기 후반기 한치윤), 《해동명장전》(1794년 저술 홍량호)

이렇듯 고구려가 단군조선에 뿌리를 둔 해동의 나라, 조선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은 옛 우리 나라 사람들의 확고한 인식이였다.

고구려가 《해동》으로 불리우던 조선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은 둘째로, 옛 중국사람들도 고구려를 《해동》의 나라로 다같이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해동》이 조선의 나라들을 가리킨 대명사였고 고구려가 해동에 속한 나라였다는것은 당사자인 우리 나라 사람들만이 아닌 옛 중국사람들의 똑같은 견해였다는것을 몇가지 기록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해동삼국》은 조선의 삼국,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이르는 말이였다.

물론 중국에서도 220~280년에 위, 촉, 오의 세 나라가 병립하여있었고 이 세 나라를 가리켜 중국사가들이 《삼국》이라고 표현하였다. 중국정사의 하나인 《삼국지》나 이 시기의 역사를 소설화한 《삼국연의》의 《삼국》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옛날에 중국사람들은 중국의 《삼국》과 우리 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를 구별하기 위하여 조선의 삼국을 보통 《해동삼국》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사실은 651년에 당나라 고종이 백제의 의자왕에게 보낸 편지내용 하나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해동의 세 나라(海東三國)》는 창건한 역사가 오래며 경계를 나란히 하고 지역이 실로 맞대여 호상 의지하여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그만 혐의와 분쟁이 생겨서 전쟁을 번갈아 일으켜 거의 무사한 해가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삼한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을 칼도마우에 오른 고기와 같게 하며 쟁기를 장만하여 분풀이를 하는 일이 아침저녁으로 계속되고있다. 나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지라 매우 가엾게 여기는바이다.

지난해에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이 함께 왔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원한을 풀어 버리고 다시 친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권 제28 백제본기6 의자왕 11년, 《구당서》권 제199 백제전

당나라 고종이 말한 《해동삼국》, 근래에 이르러 세 나라가 전쟁을 번갈아 일으켜 백성들의 목숨이 칼도마우에 오른 고기와 같다고 한 삼한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삼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옛 중국에서 《삼한》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것은 《후한서》한전(《후한서》권85 열전동이한)인데 그것은 원래 우리 나라 고대 진국의 마한, 진한, 변한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런데 일부 책들에서는 이 《삼한》을 본래의 의미를 뛰어넘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함하는 세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총칭하여 처음으로 《삼한》이라고 한것은 당나라사람들이였다.

신, 구《당서》저수량전에 의하면 당태종은 644년에 신하인 저수량과 고구려침략을 모의하면서 《삼한》이라는 용어를 썼다.

또한 《책부원귀》제왕부에 의하면 당태종은 644년 10월에 웅주사람들을 모아놓고 고구려를 칠데 대해 설교하면서 《삼한》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당나라사람들이 칭한 이 《삼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우리 나라 삼국을 가리

켰다는것만은 명백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데 묶어 《삼한》이라고 처음 부른것은 당태종과 그의 아들 고종과 그 신하들이였던것이다.

당태종 등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켜 오늘의 조선중부이남지역에 있던 고대진국의 마한, 진한, 변한을 가리키던 《삼한》이라는 감투를 씌운것은 잘못된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립장의 일면이 반영되어있다. 다시말하여 옛 중국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데 묶어 《삼한》이라고 쓴것은 이 나라들을 하나의 민족국가들로 보았다는 인식에서 표현한것이다.

고구려를 백제, 신라와 함께 《해동성국》, 《삼한》으로 표현한 이러한 자료들은 옛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백제, 신라와 함께 《해동의 삼국》 다시말하여 같은 겨레의 나라, 조선민족의 국가들로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문헌통고》(월, 마단림 찬 권327 4 예고4)에 녀진이 《해동청》을 조공했다는 기사가 있어 녀진을 《해동》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녀진을 《해동》이라고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해동청》은 매의 일종이다. 그런데 《본초강목》에 의하면 《푸른매는 료동에서 나온것이 가장 뛰어나기때문에 그것을 〈해동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녀진이 아니라 료동을 가리켜 《해동》이라고 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부 중국력사기록들에서는 료동이 본래 중국의 땅이었다는 자료들이 보인다.

당나라는 료동의 땅이 주대의 《기차국》이요, 한대의 현도군이였다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한 고구려를 반드시 굴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 《구당서》권199 동이전 고려(고구려) 고구려땅이 원래 주나라때 《기차》를 봉

---

했던 지역이라는 《기자동래설》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학계가 밝힌지 오래다.

그리고 료동땅이 본래부터 중국의 땅이었다는것은 역사적사실을 외곡한것이다. 원래 료동지역은 조선반도와 함께 원시시대이래 우리 선조들의 활무대였고 한4군은 한나라침략자들이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압록강북쪽의 고조선땅을 강점하고 거기에 설치했던것이다.

고구려인민들은 오랜 기간 줄기찬 투쟁을 벌려 한나라를 비롯한 강점자들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았던것이다.

료동이 옛 중국땅이었다는 일부 자료들은 다 근거없는 주장이며 따라서 그러한 외곡된 자료들은 예로부터 료동땅이 조선민

족의 활무대였다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그것은 중국의 옛 기록들에 우리 선조들이 자리잡고있던 오늘의 조선반도와 료동지역을 가리켜 《해동》이라고 명기된 사실들이 명백히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옛 중국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동쪽에 존재한 나라들속에서도 주로 조선의 나라들만을 가리켜 《해동》으로 표기하고 불렀던것이다.

이와 같이 옛 우리 나라와 중국사람들이 조선의 나라들을 가리켜 불렀던 《해동》에 대한 표기를 통해 고구려가 조선민족의 나라였는것을 더욱 명백히 알수 있다.

역사적사실들은 고구려가 《해동》 즉 조선의 나라들을 가리켜 불리워진 나라들속에서 당당히 취급되였던 우리 민족의 국가였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해준다.